

보도일시	배포 시점부터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6. 9. 27(일) 15시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담당자	권순봉 팀장 송현호 과장	연락처	02-2015-9043 02-2015-9047

일본 총무성의 2026년 국제요금 비교 문제점 및 국내 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참고자료

- 일본 총무성 국제요금 비교자료는 자국에 유리하도록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 자의적 요금제 적용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
 - ※ 잘못된 요금제 비교, 일본은 자국의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 미적용 등
- 해당 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은 6개국 중 3~4위의 중위권 수준
 - ※ 일본의 경우 동일 기준 적용시 하위권(4~6위)으로 수준으로 하락
-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분석에 기반한 국제요금 비교로 국내 통신요금 수준을 단정 짓는 것은 지양할 필요
- 학계 및 국내외 연구기관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데이터 사용량 대비 요금, 영업이익률, 네트워크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중하위권 수준

1.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일본 총무성의 통신요금 비교

- 일본 총무성의 국제요금 비교 자료는 통계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요금제 선정과 비교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신뢰성 저하를 초래하는 잘못된 요금제 선택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4G와 5G 요금제의 교차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2026년 7월에는 이용자 선택이 쉽도록 통합요금제를 출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성은 4G 기준 월 20GB 요금 비교 시 실제 적용 가능한 4,200엔(약 4.2만원) 요금제 대신, 더 비싼 과거의 6,916엔(약 6.9만원) 요금제를 대입하여 우리나라가 6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산출
- 둘째, 일본은 자국의 요금 산출 과정에서 음성 및 문자에 대한 추가 요금을 배제하여 결과를 크게 왜곡한 부분이 있음
- 실제 조사 대상 6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반면, 일본은 유일하게 음성과 문자에 대해 사용량 기반 별도 요금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여 최소 2천엔(약 2만원)의 요금을 더 저렴하게 산출하는 등 자국에 유리하도록 비교 기준을 달리 설정함
- 셋째, 일반적으로 국제요금 비교에서 제외되는 (저가형, 독립형) 특수요금제까지 모두 포함하여 요금을 비교함
- OECD 등 주요 국제기관의 비교 자료에서는 접근성이 제한된 2nd Brand 요금제를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무성은 일반 요금제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2nd Brand 요금제(ahamo)까지 모두 반영

2. 동일 기준 적용 시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중위권 수준

- 일본 총무성이 적용한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 동일한 기준(음성/문자 무제한, 특수 요금제 제외 등)으로 6개국 통신 요금을 재비교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

- 모든 비교군에서 1~4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요금 순위는 동일 기준 적용 시 4~6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는 반면, 우리나라 통신 요금은 6개국 중 3~4위인 중위권 수준으로 변경
 ※ 동일 조건(Basket)에서 일본 요금은 총무성 자료 대비 최소 1,294엔에서 최대 7,102엔까지 상승

3. 한계를 지닌 자의적 통신 요금 비교 지양 필요

- 국제 통신 요금 수준은 단순한 요금 수치만이 아니라, 통신망의 품질, 시장 성과, 제공되는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일본 내부의 언론사(Engadget)조차 2nd Brand 요금제를 포함한 총무성의 통계를 '사과와 꿀을 비교한 엉터리 통계'로 비판한 바 있으며 이는 정부의 요금 인하 정책 실적을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유리한 데이터를 취사선택했다는 지적임
- 더불어 일본 총무성 역시 해당 국제요금 비교가 서비스 제공 지역이나 통신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 통신 요금 비교는 지양 필요

4. 종합적인 지표 비교시 우리나라 통신 요금은 중하위권

- 2024년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10개국 국제요금비교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통신 요금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남
- 소량, 중량(평균), 다량, 무제한 등 모든 데이터 비교 구간에서 우리나라 통신 요금은 해외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순위에서도 시장환율 기준 3위, 국가별 임금 기준 4~5위, PPP 환율 기준 3~5위를 기록하며 저렴한 중상위권 수준을 유지

- 또한,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및 지불 요금(ARPU)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
- 우리나라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28.80GB)은 OECD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데이터 1GB당 지불하는 요금(ARPU)은 \$1.01로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해당
- 한편 국내 이동통신사의 수익성 지표 역시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통신사의 평균 EBITDA 마진은 22.0%로 OECD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며, 글로벌 주요 ICT 사업자들과 비교하더라도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5년 평균)은 7.1%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반면, 2025년 해외 주요국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타 국가 대비 월등히 높아 가격 대비 서비스 밸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보도참고자료 (세부)

- ▶ 총무성 국제요금 비교는 “비교 기준 및 요금제 선정”을 자의적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적용한 자료로 통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 1) 잘못된 요금제(특히 우리나라)가 선택되는 등 신뢰성/객관성 저하
 - 2) 음성·문자 요금을 일부만 적용(일본 제외 모든 국가가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하여 일본 요금을 저렴하게 산출
 - 3) 국제요금 비교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2nd Brand 요금을 포함하여 일본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
- ⇒ 상기 문제점 개선 비교시 우리나라 요금은 중간 수준에 해당
- ▶ 최근 학계 발표(국회 토론회 등)상 주요 10개국 요금비교 시 우리나라 요금은 중상(저렴한 기준) 수준으로 조사
 - 또한, 국가별 평균 데이터사용량, 지불요금(ARPU), 통신사 수익성, N/W 품질 등 종합적 고려시 우리나라 요금이 비싸다고 보기 어려움
- ⇒ 인위적/자의적 분석에 따른 국제요금 비교로 국내 요금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지양 필요

1. 우리나라는 LTE/5G 통합요금제가 출시되었는데도, 더 비싼 과거 요금제를 대입하는 중대한 오류
 - 4G 기준 월 20GB 데이터 비교 시 우리나라가 6,916엔(약 6.9만원, LTE T플랜 요금제)으로 6개국 중 가장 높다고 하였으나,
 - 우리나라는 4G/5G 요금제 교차가입 가능(23년), 통합요금제 출시(26년 7월)로 실제로는 4,200엔(약 4.2만원, 다이렉트42/24GB) 요금제가 선택되어야 함

2. 음성·문자 사용량별 추가 요금을 배제하여 일본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
 - 일본은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음성과 문자를 사용량 기반 별도로 과금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그 외 5개국은 무제한 제공)
 - * 일본 요금제는 기본료에 음성 무제한 부가서비스(1,980엔)와 문자 평균 사용량(60건, 198엔)을 추가한 합계 금액으로 국제요금 비교 필요
 -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 도출을 위해, 불리한 부분은 제외(또는 최소화)하고 최소 2천엔(약 2만원)의 요금을 더 저렴하게 산출하는 등 유리한 비교기준을 적용하여 조사 결과를 왜곡

3. 일반적인 국제요금 비교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 전용 2nd Brand 요금제를 반영한 왜곡된 통계 자료
 - 일본 NTT Docomo의 2nd Brand 요금제인 ahamo는 가입방식, 조건 등이 본체 요금제와 완전히 독립된 요금제로 국제요금비교시 제외 필요
 - * MVNO 사업자 대응을 위해 만든 Brand이자 요금제로 NTT Docomo 가입자라도 요금제 변경불가(신규가입 필요), 결합할인 미제공 등 별도 사업자처럼 운영
 - OECD 등 국제요금 비교 시 접근성이 제한적이거나 가입조건이 특별한 특수 요금제(Segment 요금제, 2nd Brand 요금제, 한시 프로모션 등)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본은 제한없이 포함하여 비교

4. 문제점 수정 후 6개국 요금을 다시 비교 시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
 - 6개국 모두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인 동일 기준(음성/문자 무제한, 특수요금제 제외 등)으로 비교시
 - 일본은 모든 비교군에서 1~4위 수준이었던 통신 요금이 4~6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일본 순위 하락 및 가격 보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위권(3~4위)으로 변경
 - * 총무성 자료(2,974~9,332엔) 대비 동일 basket에서 최소 1,294엔, 최대 7,102엔 상승

[오류/비교기준 수정 후 요금수준 비교]

구분	Basket			도시별 요금 수준 (저렴한 순위)					
	음성	문자	데이터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서울
4G	44 분	60 통	2GB	2,974엔 ⇒ 4,928엔 (5위)	6,684엔 (6위)	2,691엔 (2위)	2,495엔 (1위)	4,037엔 (4위)	3,510엔 (3위)
			5GB	2,974엔 ⇒ 6,028엔 (5위)	6,684엔 (6위)	2,974엔 (2위)	2,495엔 (1위)	4,037엔 (4위)	3,510엔 (3위)
			20GB	2,974엔 ⇒ 10,076엔 (6위)	6,684엔 (5위)	3,259엔 (2위)	2,495엔 (1위)	4,037엔 (3위)	5,310엔 (4위)
			50GB	4,954엔 ⇒ 10,626엔 (6위)	6,684엔 (4위)	3,686엔 (2위)	3,465엔 (1위)	6,732엔 (5위)	5,760엔 (3위)
			100GB	4,954엔 ⇒ 10,626엔 (6위)	6,684엔 (4위)	3,828엔 (2위)	3,465엔 (1위)	8,080엔 (5위)	6,210엔 (3위)
			무제한	9,332엔 ⇒ 10,626엔 (4위)	6,684엔 (2위)	4,966엔 (1위)	-	11,450엔 (5위)	8,010엔 (3위)
5G	44 분	60 통	2GB	2,974엔 ⇒ 4,928엔 (5위)	6,684엔 (6위)	2,691엔 (1위)	3,465엔 (2위)	4,037엔 (4위)	3,510엔 (3위)
			5GB	2,974엔 ⇒ 6,028엔 (5위)	6,684엔 (6위)	2,974엔 (1위)	3,465엔 (2위)	4,037엔 (4위)	3,510엔 (3위)
			20GB	2,974엔 ⇒ 10,076엔 (6위)	6,684엔 (5위)	3,259엔 (1위)	3,465엔 (2위)	4,037엔 (3위)	5,310엔 (4위)
			50GB	4,954엔 ⇒ 10,626엔 (6위)	6,684엔 (4위)	3,686엔 (2위)	3,465엔 (1위)	6,732엔 (5위)	5,760엔 (3위)
			100GB	4,954엔 ⇒ 10,626엔 (6위)	6,684엔 (4위)	3,828엔 (2위)	3,465엔 (1위)	8,080엔 (5위)	6,210엔 (3위)
			무제한	9,332엔 ⇒ 10,626엔 (4위)	6,684엔 (2위)	4,966엔 (1위)	-	11,450엔 (5위)	8,010엔 (3위)

< 국내외 객관적 지표상 한국 요금은 저렴한 수준 >

1. 주요 10개국 국제요금비교 결과 (24년 국회 토론회)

- 우리나라 사용자의 평균 사용량 패턴을 고려한 주요 10개국 요금 수준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 * 24년 우리나라 통신요금수준 바로알기 토론회(김현의원 주최, 외대 김용 재교수 발제)
- 우리나라 요금은 소량/중량(평균)/다량/무제한 등 모든 비교 구간에서 해외 평균보다 낮으며, 순위로는 해외 대비 중상위권(10개국 중 3~5위) 수준

[토론회 발제자료 발췌(이동통신 요금 비교)]

> (1) 이동통신 서비스(단품) 요금 : Summary

✓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모든 비교 구간에서 해외 평균 이하

- 시장환율 기준 27~34% 저렴
- 국가별 임금 기준 11~14% 저렴

✓ 우리나라 순위 비교 (저렴한 순)

- 시장환율 기준 3위
- 국가별 임금 기준 4~5위
- PPP 환율 기준 3~5위

→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해외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며 중상위권 수준

국가	시장 환율 (원화)				일평균 임금 대비 통신비 비중			
	소량	중량(평균)	다량	무제한	소량	중량(평균)	다량	무제한
프랑스	8,644	8,644	12,973	21,632	3.3%	3.3%	5.0%	8.3%
영국	29,911	33,430	38,708	54,543	8.8%	9.9%	11.4%	16.1%
한국	27,000	36,000	44,200	54,400	11.9%	15.9%	19.5%	24.0%
스페인	23,090	38,964	53,323	53,323	12.7%	21.4%	29.3%	29.3%
스웨덴	33,193	52,955	65,746	72,141	12.2%	19.4%	24.1%	26.5%
독일	38,408	56,653	68,674	124,994	10.5%	15.5%	18.8%	34.2%
호주	56,747	56,747	59,633	78,869	15.6%	15.6%	16.4%	21.7%
미국	71,802	71,802	107,006	126,734	19.3%	19.3%	28.7%	34.0%
캐나다	75,172	75,172	75,172	114,614	21.2%	21.2%	21.2%	32.4%
일본	44,553	84,078	84,078	84,078	22.7%	42.9%	42.9%	42.9%
평균	40,852	51,445	60,951	78,533	13.8%	18.4%	21.7%	26.9%
평균 대비 한국 요금	-33.9%	-30.0%	-27.5%	-30.7%	-14.0%	-14.0%	-10.5%	-11.1%

※ 중국: 시장환율 기준 14,395원, 15,503원, 17,349원, 78,869원 / 임금대비 15.5%, 16.7%, 18.7%, 85%

1f

> 결론 (1). 우리나라 통신 서비스요금 수준 : 이동통신 서비스

- ✓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비교 대상국 대비 중상위권으로, 일부 개선사항은 있지만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님
 - 5G 출시 초기에는 고가요금제 위주의 구성과 요금제가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소량구간에서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5G 최저 요금수준 인하, 중간구간 선택권 확대 등 5G요금제 다양화로 '23년 3~7위였던 순위가' '24년 3~5위로 1~4단계 상승

이동통신 요금 수준 '23년 대비 '24년 순위변화 비교

구분	시장환율			일소득대비			PPP환율		
	23년	24년	비교	23년	24년	비교	23년	24년	비교
소량	5위	3위	+2단계	7위	4위	+3단계	6위	5위	+3단계
중량	4위	3위	+1단계	6위	5위	+1단계	7위	3위	+4단계
다량	3위	3위	-	6위	5위	+1단계	5위	4위	+1단계
무제한	4위	3위	+1단계	5위	4위	+1단계	5위	5위	-

38

2. 데이터 사용량 / 지불요금(ARPU) 고려시 상대적으로 저렴

-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상위권

* OECD 회원국 중 2024년 국가별 명목 GDP Top 11 기준

OECD 주요국 모바일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단위: Gb per month



출처: GSMA(www.gsmainelligence.com)

- 반면, 데이터 사용량 대비 통신 요금 지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을 차지

* 국가별 ARPU(평균 지불액)를 국가별 1인당 평균 데이터 이용량으로 나누어 계산

2025년 OECD 주요국 ARPU/GB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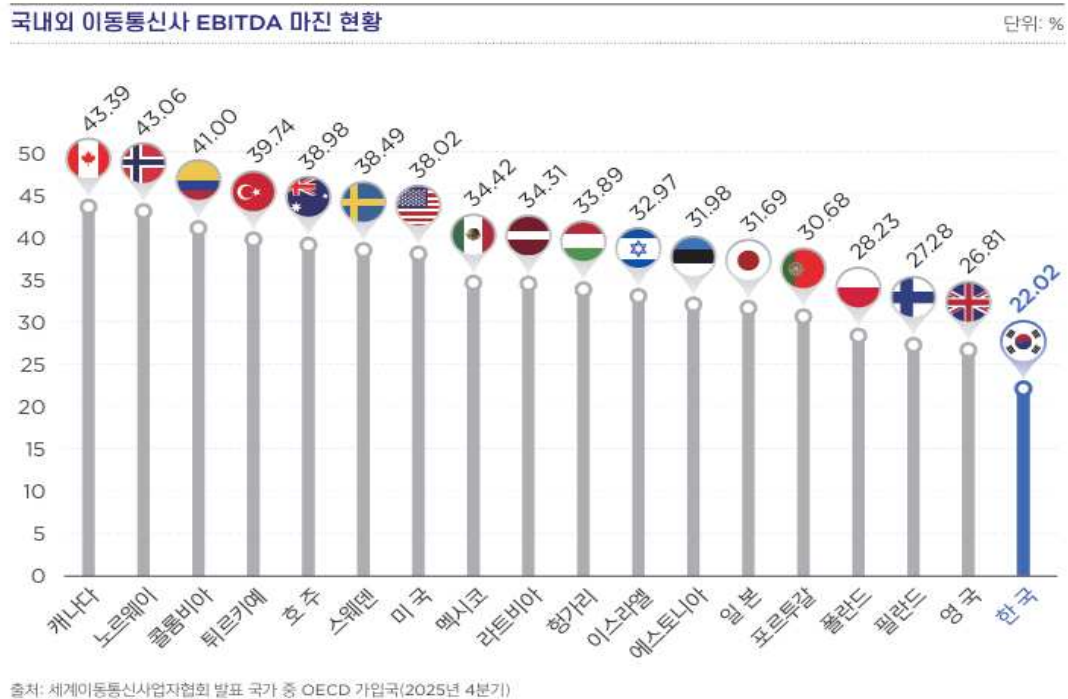


출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2025년, KIS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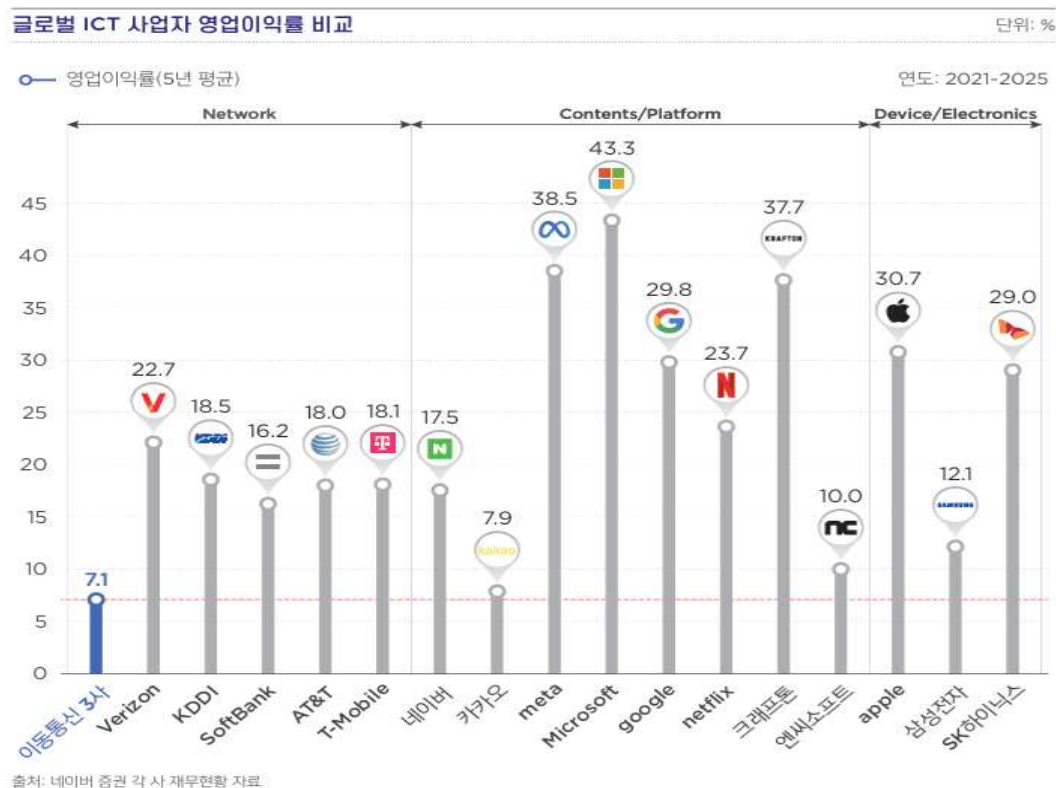
3. 주요국 사업자 수익성 지표 고려시 우리나라의 상대적 요금은 저렴한 편

- 우리나라 통신사 평균 EBITDA 마진*은 22.0%로 OECD 주요국 중 최저

* EBITDA 마진: 영업활동으로 실제 얼마나 이익이 남았는지에 대한 비율. 회사마다 동일 환경에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 비교 시 활용



- 영업이익을 비교시에도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음



4. 일본 내부에서도 총무성 비교가 객관적이지 않고, 속도/커버리지 등 서비스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 일본 언론사 Engadget은 21년 기사에서, <사과와 꿀을 비교했다>며, 2nd Brand 요금제(ahamo)를 요금비교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엉터리 통계라고 비판
 - 특히, 당시 총리(스가 요시히데)의 간판 정책이 휴대전화 요금인하였던 만큼, 정권 실적을 돋보이게 만들 목적으로 유리한 데이터를 취사선택했다고 언급
 - * Engadget은 “이렇게 자국에게만 유리한 특수 요금제를 억지로 끌어와 1위를 만들 것이라면, 매년 세금을 들여 진행하는 총무성의 내외 가격차 조사는 더 이상 신뢰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지적
 - 총무성 역시 해당 조사에 서비스 제공지역, 통신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설명*하며 한계를 인정
 - * 일본 중의원 총무위원회 회의록(20년 11월) 참조

5. 국제요금 비교는 단순 요금 수준만이 아닌 품질, 시장성과 등까지 고려한 종합적 비교가 바람직
- 우리나라 이동통신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요금 대비 제공되는 품질까지 고려시 가격 대비 서비스 수준은 매우 우수한 수준



■ (별첨) '26년 일본 총무성 요금비교 개요

○ 일본 총무성은 6개 국가(도시)의 통신 요금 수준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자료를 발표(26.06.30)

-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서울을 각 국가 대표 도시로 선정
- 음성(44분), 문자(60통), 데이터(6개구간*)을 Basket 설정

* 2GB, 5GB, 20GB, 50GB, 100GB, 무제한

[총무성, 국제요금 비교 결과(1위 사업자 기준)]

구분	Basket			도시별 요금 수준 (저렴한 순위)					
	음성	문자	데이터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서울
4G	44분	60통	2GB	2,974엔 (3위)	6,684엔 (6위)	2,691엔 (2위)	2,495엔 (1위)	4,037엔 (5위)	3,107엔 (4위)
			5GB	2,974엔 (공동2위)	6,684엔 (5위)	2,974엔 (공동2위)	2,495엔 (1위)	4,037엔 (4위)	6,916엔 (6위)
			20GB	2,974엔 (2위)	6,684엔 (5위)	3,259엔 (3위)	2,495엔 (1위)	4,037엔 (4위)	6,916엔 (6위)
			50GB	4,952엔 (3위)	6,684엔 (4위)	3,686엔 (2위)	3,465엔 (1위)	6,732엔 (5위)	6,916엔 (6위)
			100GB	4,952엔 (3위)	6,684엔 (4위)	3,828엔 (2위)	3,465엔 (1위)	8,080엔 (6위)	6,916엔 (5위)
			무제한	9,332엔 (4위)	6,684엔 (2위)	4,966엔 (1위)	-	11,450엔 (5위)	8,754엔 (4위)
5G	44분	60통	2GB	2,974엔 (2위)	6,684엔 (6위)	2,691엔 (1위)	3,465엔 (4위)	4,037엔 (5위)	3,152엔 (3위)
			5GB	2,974엔 (공동1위)	6,684엔 (6위)	2,974엔 (공동1위)	3,465엔 (4위)	4,037엔 (5위)	3,152엔 (3위)
			20GB	2,974엔 (1위)	6,684엔 (6위)	3,259엔 (2위)	3,465엔 (3위)	4,037엔 (4위)	4,902엔 (5위)
			50GB	4,954엔 (3위)	6,684엔 (5위)	3,686엔 (2위)	3,465엔 (1위)	6,732엔 (6위)	5,603엔 (4위)
			100GB	4,954엔 (3위)	6,684엔 (5위)	3,828엔 (2위)	3,465엔 (1위)	8,080엔 (6위)	5,603엔 (4위)
			무제한	9,332엔 (4위)	6,684엔 (2위)	4,966엔 (1위)	-	11,450엔 (5위)	7,237엔 (3위)